

# 이강인, 1년6개월 만에 벤투호 복귀...손흥민 등 최정예 소집



부활한 '천재' 이강인(21·마요르카)이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1년6개월 만에 벤투호로 돌아왔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선수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도움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이강인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월 한일전(0-3 패) 이후 1년6개월

만의 대표팀 복귀다. 소속팀에서의 출전 시간 부족으로 한동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강인은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강인은 지난 11일 스페인 강호 레알 마드리드와의 정규리그 5라운드에서 전반 35분 정확한 프리킥으로 베아트 무리키의 선제골을 도운 것을 포함해 이번 시즌 1골 3도움을 기록

## ◇축구 국가대표 9월 A매치 소집 명단(26명)

- ▲골키퍼 =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 ▲수비수 = 김민재(나폴리) 김영권, 김태환(이상 울산), 권경원(감바 오사카) 조유민(대전) 김문환, 김진수(이상 전북) 윤종규(서울) 홍철(대구)
- ▲미드필드 =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마요르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권창훈(김천) 이재성(마인츠) 나상호(서울) 양현준(강원) 황인범(올림피아코스) 손준호(산둥) 백승호(전북) 정우영(알사드)
- ▲공격수 = 황의조(올림피아코스), 조규성(전북)

하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이자, 3도움은 이번 시즌 현재 라리가 도움 순위 공동 1위에 해당한다. 벤투 감독은 지난 동아시아컵 실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 황인범(이상 올림피아코스) 유럽과 핵심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부상으로 지난 6월 A매치에 불참했던 김민재(나폴리), 이재성(마인츠)도 이름을 올렸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손준호

## 23일 코스타리카·27일 카메룬과 '월드컵 모의고사'

손흥민·황희찬·황의조·김민재 등 유럽과 총출동  
손준호도 1년 만에 태극마크... '신예' 양현준 첫 발탁

(산둥)은 오랜 만에 대표팀에 뽑혔다. 지난 7월 동아시아컵에 차출됐으나, 부상으로 낙마한 바 있다. 올해 K리그 최고의 신인으로 꼽히는 양현준(강원)은 처음 A대표팀에 호출됐다. 양현준은 이번 시즌 K리그 29경기에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벤투호는 오는 19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23일 코스타리카(고양종합운동장), 27일 카메룬(서울월드컵경기장)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7월 K리그 위주로 나섰던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이후 두 달만의 소집이다. 또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 멤버는 올해 6월 국내에서 열린 A매치 4연전 이후 3개월 만이다. 9월 평가전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 사실상 마지막 옥석가리기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엔트리 26명을 확정하고, 11월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치른 뒤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은 카타르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속했다. 9월 평가전 첫 상대인 코스타리카는 국제축구연맹(FIFA) 34위로 한국(28위)보다 낮다. 역대 전적에선 한국이 9전 4승2무3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한 뒤 뉴질랜드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 카타르월드컵에선 독일, 스페인, 일본과 함께 죽음의 조인 E조에 속했다. 두 번째 상대인 카메룬은 FIFA 랭킹 38위로, 월드컵 본선에 총 8차례 진출한 아프리카 강호다.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4전 2승2무로 앞선다. 카메룬은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서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와 G조에 묶였다. 뉴시스

## 벤투 감독 "이강인, 최근 경기력 좋아...손흥민 침묵, 걱정 없어"

### 이강인, 1년6개월 만에 A대표팀 복귀 '골 침묵' 손흥민 향해 변함없는 신뢰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21·마요르카)이 1년6개월 만에 다시 A대표팀에 승선하며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을 향한 꿈을 키웠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선수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오는 19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하는 대표팀은 23일 코스타리카(고양종합운동장), 27일 카메룬(서울월드컵경기장)과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도움 공동 1위(3개)에 올라 있는 이강인은 지난해 3월 한일전(0-3 패) 이후 1년6개월 만에 벤투호의 부름을 받았다. 벤투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대해 현재 경기력과 폼, 대표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선발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기준과 이유로 선발했다"며 이강인을 호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인(21·마요르카)이 1년6개월 만에 다시 A대표팀에 승선하며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을 향한 꿈을 키웠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선수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오는 19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하는 대표팀은 23일 코스타리카(고양종합운동장), 27일 카메룬(서울월드컵경기장)과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도움 공동 1위(3개)에 올라 있는 이강인은 지난해 3월 한일전(0-3 패) 이후 1년6개월 만에 벤투호의 부름을 받았다. 벤투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대해 현재 경기력과 폼, 대표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선발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기준으로 선발했다"며 이강인을 호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인의 발탁 여부에 쏠린 관심이 대단했던 탓인지 벤투 감독은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걸 최소화했다. 그러면서 "선수 개인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팀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단(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했다. 이강인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공격 프로세스에서 좋은 모습이다. 좋은 판단력과 기술이 있다. 수비에선 특성들을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개별 선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각 선수들이 무엇을 대표팀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강인의 좋은 경기력과 컨디션에 주목했다. 손흥민(토트넘)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개막 이후 리그 6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경기까지 총 7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이와 관련해 "과거 득점을 많이 했을 때와 동일하다. 걱정은 없다. 다음주 월요일에 잘 도착할 것이다"며 "득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2경기에만 집중할 것이다. 손흥민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은 여전하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격의 '믿음맨'이 손흥민이라면 수비에

**-이강인을 선발한 배경은.**  
"이강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대해 현재 경기력과 폼, 대표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선발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이유로 선발했다."

**-이강인의 경기력을 어떻게 봤나. 활용 계획은.**  
"선수 개인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팀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단(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이강인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공격 프로세스에서 좋은 모습이다. 좋은 판단과 기술이 있다. 수비에선 특성들을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개별 선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각 선수들이 무엇을 대표팀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양현준을 최초로 발탁했는데. 어떤 점을 특별하게 봤나.**  
"양현준을 처음 발탁했는데 우선 소속팀에서 많이 뛰고 있다. 여러경기에 출전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기술과 스피드를 가졌다. 공격 장면에서 지역 관리를 잡한다. 원거리에서 활약하면서 득점도 보여줬다.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본다.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계획이다."  
**-손흥민의 골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보**

나. "득점을 많이 했을 때와 동일하다. 걱정은 없다. 다음주 월요일에 잘 도착할 것이다. 득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2경기에만 집중할 것이다. 손흥민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은 여전하다. 걱정하지 않는다."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의 최근 활약을 어떻게 봤나.**  
"우리가 예상한대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다. 상당히 판타스틱한 선수다. 공수 양면에서 좋은 기술을 가졌다.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했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명단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유럽과 K리그, 소속 리그에서 계속 출전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잘 모여 2연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카타르월드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월드컵에서 3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내가 예상한 것처럼 경쟁할 수도 다음 단계(16강)로 진출한다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승우가 발탁되지 않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뽀빠지 않은 모든 선수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기술, 전술적인 판단일 뿐이다."

**-이번 2연전이 사실상 마지막 점검인데. 26명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최종엔트리에 간다고 볼 수 있나.**

"이번 명단은 9월 명단이다. 월드컵까지 시간이 좀 더 있다. 선수들이 월드컵 전까지 많은 경기들을 출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소집을 고민하고, 이후 최종 명단을 고민할 것이다. 아마도 (9월 명단)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명단에 많이 포함될 것이다. 그래도 누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을 개선하길 바라나.**  
"발전할 부분이라는 건 끝나지 않는 프로세스다. 매 소집마다 발전할 부분이 있다. 10월 소집과 비교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일 전체적으로 발전할 부분을 생각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걸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이 도착하면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뉴시스



## 장성우, 추석장사씨름서 통산 9번째 백두장사 등극

장성우(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개인 통산 9번째 꽃가마를 탔다. 장성우는 12일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디스제약 2022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최성민(태안군청)을 3-1로 제압했다. 올해 첫 우승을 거머쥔 장성우는 개인 통산 9번째(백두장사 7회·천하장사 2회)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12월 문경왕중왕전 이후 약 9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장성우는 8강에서 이영호(부산갈매기)를 2-1로 제압하고 4강에서 박정석(창원특례시청)을 상대로 단 한 점도 주지 않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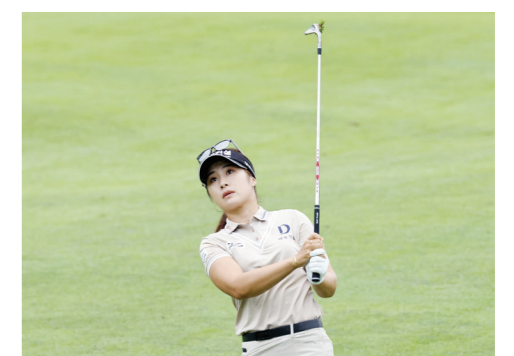
백두급 결정전에 오른 장성우의 마지막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최성민이었다. 첫 번째 판에 최성민이 밀려치기를 성공시켜 먼저 한 점을 가져갔다. 하지만 장성우는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에서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들배치기를 연속으로 성공시켜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승기를 잡은 장성우는 네 번째 판 시작과 함께 잡채기를 구사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편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태백급(80kg 이하) 허선형, 한라급(105kg 이하) 최성환에 이어 백두급 장성우까지 3체급을 석권했다. 영암=조재호기자

## 이정은6, 女골프 세계랭킹 43위→40위

## 고진영 33주 연속 1위 유지·넬리 코다 2위

## 김효주 8위·전인지 10위...고진영 33주 연속 1위 '고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은(62)이 세계랭킹 40위로 올라섰다. 이정은은 1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43위에서 40위로 도약했다. 이정은은 지난 12일 막을 내린 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에서 단독 4위에 올라 건재를 과시했다. 고진영(27)은 33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수성했다. 넬리 코다(미국)는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호주교포 이민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 브루켄데스(캐나다)는 3-5위를 유지했다.



김효주(27)는 8위, 전인지(28)는 여전히 10위에 자리했다.